

“유가족 돕고 기억 더하기... 일면식 없는 작가 30여명 작품 보내와”

세월호 1000일



추모전 여는 목공예가 김상훈씨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큰 아픔을 줬습니다. 특히 저같이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욱 마음이 아프죠. 벌써 세월호 1000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작품을 구매해 유가족을 돕고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작거나 전시를 열었습니다.”

5일 광주일곡도서관 내 갤러리에서 만난 김상훈(44) 감성기구 스튜디오 ‘뿌리’ 대표는 혼자서 라벨작업을 하고 전시물을 설치하는 등 바쁜 모습이었다.

그는 이달 25일까지 갤러리에서 ‘세월호 천일을 기억하며’ 추모전을 연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000일(9일)을 맞아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동료들과 뜻을 모은 전시다. 각종 목재 수공예작품들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전액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입구에서 설치된 전시 안내 배너에는 전시 참가자 명단이 눈에 띄었다. ‘뿌리’를 비롯해 ‘감성빛다’, ‘나그네’, ‘나비우드’, ‘뜬구름이작도’, ‘배낭족’ 등이다. 김 대표는 ‘인터넷 카페 아이디’라고 설명했다.

“원래 세월호 3주기에 맞춰 전시를 열 계획이었죠. 지난 12월 중순에서야 문득 1000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혼자 전시를 열 수 없으니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목공동호회 카페에 도움을 요청했죠. 취지에 공감한 회원분들이 작품을 기부해줬습니다.”

서울, 인천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아마추어 작가 30여명이 힘을 보탰다. 이중 절반 이상은 김 대표와 일면식이 없어도 기꺼이 동참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산의 어느 작가는 “나는 경상도 출신에 보수 성향이지만 세월호 추모전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며 작품을 보내왔다.

1000원짜리 노란 리본부터 1000만원 상당 원목테이블까지 30종 270여개 작품들이 전시장을 꽉 채우고 있다. 한쪽 벽면에 걸린 자가 액자는 전통 소목과 옷칠로 잘 알려진 유명 작가 작품이다. 원래 500만원대이지만 절반 이하 가격에 내놓는 등 작가 모두 평소보다 대폭 낮은 금액에 작품을 판매한다. 일부러 팽플릿을 만들지 않고 아낀 비용도 유가족을 돕기 위해 쓰인다.

나무 로프트·자동차는 어린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광주 작가가 만든 부엉이 액자는 선물용으로 주부들이 구매했다. 지난해 광주디자인센터가 지정한 우수 공예 문화상품 브랜드 ‘오앤즈’ 작품도 출품되는 등 높은 수준이 엿보였다.

전시장 중간에는 길이 1.5m 나무 조각을 설치했다. 지난해 무안에서 태풍에 쓰러진 회화나무 일부가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모습과 닮아 김 대표가 주무라 놓은 것이다. 나무에는 사람들이 매달 노란 리본이, 주무라에는 노란배들이 놓여있다. 누구나 입구에 배치한 노란 종이로 배를 접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작품을 구입한 사람 대상으로 방명록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전시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해 원목탁자, 나무로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새긴 ‘내 마음 속의 대통령’ 작품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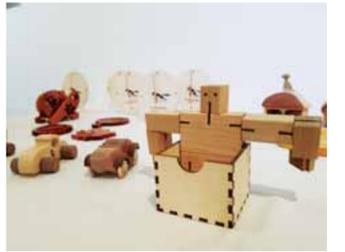
약 20년 전부터 일곡동에서 초·중·고생 수학전문학원을 운영하고, 본인 또한 세자녀를 둔 김 대표에게 세월호 사건은 더욱 특별하다. 이번 전시는 개인 시간과 비용이 상당 부분 들었지만 함께 작품을 설치하고 응원에 준 가족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오는 4월16일 즈음 전시를 한번 더 열어 추모분위기에 동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010-7582-11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세월호 1000일 추모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일곡도서관 갤러리(위)와 아래는 전시·판매중인 목공예 작품들.



25일까지 일곡도서관 갤러리

1000원 리본부터

1000만원 원목테이블까지

270여 목공작품 전시 판매

수익금 팽목항 미수습 유가족에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광주전남갤러리서 신년특별전

31일까지 ‘꿈과 진실 사이’전

광주시립미술관이 G&J 광주전남갤러리(서울 인사동)에서 31일까지 신년 특별전 ‘꿈과 진실 사이’전을 연다. 개막식은 11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역 출신 청년 작가 김성수·김태형·이진희·정정주·정찬부·최미연씨가 참여한다. 가상과 실재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를 신선하게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김성수 작가는 유리병에 나뭇잎, 달팽이 조각을 넣은 ‘기억수집’을 출품했다. 멀리서 보면 진짜 같지만 실제로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 작품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표현했다.

김태형 작가는 경험과 기억에 상상력과 생각을 조합한 작품을 창작했다. ‘38살에 탐구생활.50%’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다.



정정주 작 'Come into bloom'

온통 푸른색으로 칠한 이진희 작가의 ‘파란 벽’도 햇빛·꽃·인물 등 현실 소재를 재해석한 가상 세계를 그린 작품이다. 최미연 작가가 그린 ‘Space time’ 또한 자연 본질을 상징하는 순수·진실·정직 등 가치가 담긴 이상향이다.

그밖에 정정주 작가는 집 등 실재 공간을 촬영한 영상과 모형 건축물로 구성된 ‘응시의 도시’를, 정찬부 작가는 일회용 빨대로 나무와 동물을 만든 ‘Come into bloom’을 전시한다. 문의 062-613-71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결실’

졸업 앞둔 조선훈 미술대생 초청
갤러리 봄 14일까지 신년기획전

갤러리 봄이 오는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미술대학생 3명을 초대에 신년기획전 ‘결실’(結實)을 14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는 조선훈 미술대학 4학년 박현재·안수영·이명은씨가 참여해 서양화·동양화 작품을 선보인다.

2016 광주시립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박씨는 ‘낙원’을 주제로 공(空)을 상징하는 황무지를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만원 지폐 속 ‘일월오봉도’에서 영감을 받아 동양화 구도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작품 ‘Canyon’, ‘Desert I’ 등은 짙은 주황, 녹색 등 따뜻한 색을 사용해 안정적 느낌을 주고 낙타, 새를 등장시켜 보는 재미를 더했다.

안씨는 선인장을 소재로 삼고 있다. ‘선인장’ 연작은 평면화화하면서 질감을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나이프, 주사기, 찢주



▶이명은 작
‘동네 향기’

머니를 사용해 외곽선을 두텁게 그렸다. 한국화가 이씨는 고향 광주를 작품에 담고 있다. 광주의 오래된 거리나 동네를 소재로 작업한 ‘동네향기’ 등을 출품했다. 동네 풍경 속에 깃든 향수나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라져가는 빈민촌들을 그리며 소외계층들을 위로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문의 010-9078-18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학·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